

CryptoCraft Lab 취업후기

권혁동

저는 취업은 대학원 졸업쯤부터 고민하고자 했기에 따로 취업 정보를 알아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서는 매번 취업 정보를 찾아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실 졸업생(또는 졸업예정학생)들이 어디에 갈지가 연구실의 위상에 영향을 끼치니 중요하게 여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던 와중에 올해 10월에 교수님께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공개키 구현 쪽에 채용 공고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래는 졸업을 우선시 해야겠지만, 이런 TO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용 예정일이 12월 1일이었기에 상당히 짧은 시간동안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준비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로 준비하기 어려우며 운도 많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이며, '이러한 케이스도 있구나.'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주시으면 합니다.

전형은 총 5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기에 사실상 4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서류 전형, 발표 전형, 적성 검사, 면접 전형, 임용사전점검으로 구성됩니다. 임용 과정상에서 발생한 상세한 질답은 직접 제시할 수는 없기에 요령과 느낀 점 그리고 어느 회사나 면접이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본인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때는 회사의 지원 분야에 맞는 연구 결과만 내시면 됩니다. 즉, 본인의 주 연구분야에 맞춰서 회사에 지원했다면 부가적인 연구 분야의 논문은 굳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 외에 다른 결과물들은 평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에 약간의 논문이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연구 결과물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워낙 많으며 지원자도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이는 연구 결과물에서 인상 깊게 보여야 합니다. 연구 결과물을 시간 순으로 배치해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물을 가장 먼저 올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취업하기 전까지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을 테니 최근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는 23년 초에 등재된 SCI 논문을 가장 최상단에 제시했습니다. 그 뒤로도 역시 시간순 배치가 아닌 가장 뛰어나다 생각되는 성과들 순서대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자소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정 질문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유형의 자소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물 제출 시에 직무에 연관된 결과물만 제출했듯이,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직무에 맞는 경험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은 워낙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자소서의 질문을 모두 커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직무와는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연구 개발 중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학원 생활을 지속했다는 점은 인사담당자들도 알고 있으며, 연구 개발의 연장선이 회사의 근무가 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됩니다.

발표 전형은 PPT를 만들고 진행했습니다. 10분간 발표하고 5~10분간 질답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마다 주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발표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슬라이드에서 1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직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연구 결과물을 세 종류 소개하고, 마찬가지로 가장 가치가 높은 연구 결과물을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물을 소개하는데 슬라이드 한두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개를 하지 않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 소개하고 일부 상세한 부분은 부록으로 따로 빼서 슬라이드 맨 뒤에 놓았습니다. 실제로 부록은 발표할 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받는 인사담당자는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록을 보는 것으로 연구 결과물에 대해 모두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록에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문 슬라이드가 1장이면 부록도 1장 정도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 검사는 검사 기관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주로 외부 위탁을 맡기는데, 공기업은 잡다(jobda)라는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적성 검사 연습은 무료로 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검사한 곳은 성격 검사, 신체능력 검사, AI 면접으로 나뉩니다. 성격 검사는 질문이 주어지고 매우 짧은 시간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5초 남짓 주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고 대충 읽고 답변하면 비슷한 질문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응시자의 응답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질문을 정확히 읽고 비슷한 뉘앙스의 이전 질문이 있었다면 꼭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은 모두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변 자체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완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능력 검사는 미니 게임을 진행하는데 일부 게임은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 맞춘다는 생각이 아니라 최대한 맞춘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두면 연습을 안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AI 면접은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 캠과 마이크 모두를 키고 답변해야 합니다. 질문마다 답변 시간이 30초에서 1분 사이로 다른데, 최대한 꼭 채우는 편이 답변에 성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은 딱 한번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이나 녹음이 이상하다면 다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은 발표와는 다르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심사위원 분들의 질문만 받습니다. 저는 20분간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대체로 본인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묻고 연구 분야에 관해서 질문하며 직무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자신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손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분야 역시 해당 분야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에서 발생하는 사고, 갈등, 문제해결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무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과제 수행이나 연구 중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작정 상상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대학원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어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살기 답변을 하나 준비하고 이를 사용할 질문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은 '회사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회사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채용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을 때, 목표 의식이나 책임감을 확인하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필살기 답변으로 '자신의 역량과 직무를 연결시킨 답변'을 하시면 심사위원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 갖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방안

을 제 구현 능력과 연결시켜 제시했습니다. 면접을 마쳤을 때 면접 시간을 모두 다 소비했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가 아닌, 심사위원 분들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마치는 면접은 더는 볼일이 없다 판단해서 질문을 멈추는 것이 때문에 좋지 않고, 시간에 쫓기는 것은 답변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말이 늘어지는 경우입니다. 면접 시간을 거의 다 써가는 중에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 딱 하나만...’ 등의 질문이 나오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었다면 면접 자체는 잘 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12월 1일에 임용되어 이제 한 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첫 직장기에 비교군은 없지만, 근무 환경이 너무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대전에 위치한다는 점도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TO가 낮어야 했고, 그게 운 좋게도 ‘암호 팀’이었고, 또 운이 좋게도 ‘암호구현’을 하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수학 전공자인데 저만 컴퓨터 전공인데다 채용에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준비하고 한 번에 붙었으니 운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일 동시기에 저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이 지원했다면 저는 탈락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운입니다. 거기에 교수님께서 채용 공고를 봐주신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운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성과를 쌓아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운을 너무 바라지는 말되, 노력하다 보면 충분히 자신에게 맞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의 끝자락에.